

‘어른 김장하’를 생각하며

문화향기

이미경

(사)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원장

부끄럽게도 김장하라는 어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다시 회자된 분에 대한 영화가 있다고 하여 청소년지킴이 키퍼들과 법인의 기관장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다.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진한 감동이 밀려왔다. 힘들고 아픈사람들로 인해 돈을 벌어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힘든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주어 꿈을 키워주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었다. 진주에 그런 어른이 6명만 있으면 돈 없어서 공부 못 할 사람 없고 못 살 사람 없을 거라는 한 아주머니의 말씀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수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였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는 이에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데모하다 교도소에 다녀온 이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어른. 선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왜곡

된 생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 칭찬도 하지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 주라는 말씀에 무한한 공감이 되었다. 그의 삶은 말보다 행동으로 가득 채워졌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누군가의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 김장하 어른은 단지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 참된 어른이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는 멋진 사회인으로 더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을 멀리서 찾는다. 그러나 진정한 위대함은 늘 가까운 곳,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 속에 있다. 이는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고 우리 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헌신이란, 단지 돈이나 자원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런 김장하 어른의 삶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청소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나는 잘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가?’ 아쉬움이 많지만 교만하게도 조금은 나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지금 하고있는 일들을 더 잘해보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회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하겠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곁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입시의 굴레, 빈부격차, 가정 해체, 정서적 고립...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따뜻한 어른이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모두가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 누군가가 뒤처지더라도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회.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고, 김장하 어른은 온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김장하 어른의 삶을 기억하며, 세상 모든 어른들이 한 번쯤 거울 앞에 서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으면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어른인가?”

그리고 나의 작은 다짐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한다. 차 한번 가진 적 없이 종중결음으로 세상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어른의 족적을 닮고 싶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 비밀 투표인 ‘콘클라베’를 앞두고 교황청이 통신 신호 차단 준비에 나섰다. 5일(현지 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모습.

AP/뉴시스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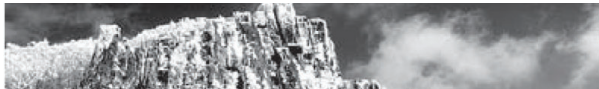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1993년, 강정인 서강대 명예교수가 한국정치학회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교육계와 지식사회를 뒤흔들었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까지 실렸던 이 유명한 문장을 그는 철저히 검증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원전 어디에도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플라톤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반영해 창작한 문장이었다. 이후 이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권고로 교과서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그러나 강 교수의 진짜 문제의식은 단순한 인용 오류가 아니었다. 그는 ‘비판 없는 복종’을 조장하는 사회, 권위를 묻지 않고 따르는 정치 문화를 겨냥했다. “법이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굳은 사고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그의 사상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교차와 횡단의 정치사상’ 같은 저서에 담겼다. 민주주의란 ‘따라야 할 가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묻고 다시 세워야 할 태도’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3일 향년 만 70세에 말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의 철학을 외면한 채 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 파기환송을 두고 여야

“악법도 법이다“



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 판단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여당은 현재 결정을 부정하고, 야당은 대법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며 비판한다. 법은 원칙이 아니라 도구가 되고, 진리는 그 자리를 잃고 있다. 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치적 압박에 법이 휘둘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법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정당하려면 사회적 합의, 시민의 권리, 헌법적 가치 위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법대로 하자”는 구호만 반복한다. 법이 부당하더라도 그 틀 안에 갇혀야 한다는 논리는, 소크라테스가 아닌 플라톤의 창작이며, 플라톤조차 ‘정의롭지 않은 법 앞에 시민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철학을 흉내 낸 폭력일 뿐이다. 강 교수는 생전 “정치는 법 이전에 사람과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 사법 판단을 정략의 언어로 소비하는 정치권 모두에게 칼날이 되는 말이다. 법을 따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법이 과연 선한가를 먼저 묻는 철학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진짜 ‘법의 지배’다.

정치가 철학을 잃으면 법은 권력의 언어가 된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그렇다. 법을 권력의 칼로 휘두르는 이 시대에, 강정인 교수의 죽음에 더욱 쓰리고 침통하다. 김성수 논설위원

社說

정치적 섹법으로 국민 마음 얻을 수 없어

국난극복 위한 비전 제시해야

6·3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정국이 안개 속에 휩싸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단일화’ 문제로 내용이 시작됐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반헌법적 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어느 때보다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 통합이나 국난 극복을 위한 고민이 사라진 정국이 답답하다.

당장 국민의힘 원내당협위원장 41명은 6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대승적 결단’으로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한 범보수 단일화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명령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라며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식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힘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이 오직 대권에만 연연해 단일화만을 핵심의제로 둔 듯한 무책임한 모습이다.

민주당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 후 민주당은 이를 ‘사법 테러’로 규정하고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선거 방해’로 규정하고 선거 전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놨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열려 둔 상태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가치마저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다. 사법부를 향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도 정당화할 수 없다.

극심한 혼돈 속에 치러지지만 이번 대선은 국가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선거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치권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민주적 가치보다 정치 섹법을 앞세우고, 진영에 몰입될 지금의 물(沒) 비전이나 물 가지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해동물 포획, 인간 중심 발상 아닌가

인간·자연 공존 방안 고민해야

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농촌에서 사슴이나 고라니 등에 의한 피해는 의외로 크다. 그렇다고 ‘적대적 관리’가 항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상생의 방안을 고민할 때다.

6일 영광군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지난해 기준 꽃사슴 93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국내 서식 밀도는 1㎢당 7.1마리지만, 안마도 꽃사슴 서식 밀도는 162마리에 달한다. 먹이를 찾아 경작지를 짓밟거나 조상 묘까지 파헤치면 서영광 주민 593명이 지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기도 했다. 고충 소록도와 순천 도심 봉화산에도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 꽃사슴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순천에서는 꽃사슴 떼가 아파트 단지에까지 출현해 전국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와 교통사고 등이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꽃사슴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야생동물의 포획이 순전히 인간의 관점에서 본 인간중심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설령 포획이 결정되더라도 포획 시기부터, 규모와 방법, 포획 후 사체 처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동물복지라는 윤리적 논란도 피할 수 없다. 포획만으로 번식력이 높은 꽃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은 필수적이다.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는 포획을 고집하는 것도 근시안적 발상이다. 환경부는 단순한 꽃사슴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기술과 사회적 협력을 결합한 자치단체의 상생관리도 필요하다. 야생동·식물에 의한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가치는 공존과 공생에 있어야 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